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1남,1,2여선교회 주관예배입니다.

13일(토) 아차산으로 등산을 갑니다. 5호선 광나루역 1번 출구에서 10시에 모입니다.

다음 주일 동호회 때 환경실천 동호회에서 선유도 공원으로 들꽃사진 출사를 갑니다. 추후 작은 시상과 전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생협에서 사과나무 분양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분양가격은 11만원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행 5:27~32 / 시 150
계 1:4~8 / 요 20:19~31

롬 7:14-25
-----------

식 당 봉 사 : 김금순 이춘재 이은정 서수진 박숙영 이지혜 박영희 김기성  
 다음 주 식당봉사 : 이형숙 광혜자 권미숙 김수진 이미혜 이명희 최숙화 문홍일  
 오늘설거지봉사 : 김정애 정연희 한상경 최은미 (두란노1속)  
 다음 주 설거지 : 홍순구 박해남 박재란 우순덕 김대근  
 새 교 우 : 김태려 이순용 김신실 이자영 이진영 장시은 고학준 윤찬란  
 장근성 박희순 장아름 조경숙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믿지 못하고 조바심치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비바람이 칠수록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하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날이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를 살피주십시오. 전쟁의 조짐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남과 북 사이에 있던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남과 북이 대립의 모습을 거두고 대화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화와 화해의 길을 속히 찾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권혁순	박혜경	김경수	김범진	김미현	김세룡	김수진
김연실	김영아	김인걸	문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일량	이은옥	김정민
이혜령	김정애	김종술	박미란	김준우	우순덕	김현동	오유경	문홍일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배근수	김금순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서정순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규만	오진훈	노순옥	윤성종
김윤정	윤영미	이계선	이소순	이광용	형인순	이국노	김민화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권현숙	이용숙	이용현	이우엘	이재문
이주영	오재영	이호원	장영숙	장재영	김재영	전희수	정현모	정현석
정현숙	차혜심	노미향	한상익	정영선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한인철
조윤숙	허신열	황현성	이오복					

### 감사헌금:

김신실	김재환	김진선	김중수	이순정	김필순	송형철	안도영	유한국
윤수진	이우원	옥귀희	이자영	임주빈	최현옥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채미혜								

### 생일감사헌금:

하진채

### 녹색꿈헌금:

신영재 안종일 정현주 무명

	장혜숙	백혜숙	백혜숙	장혜숙
	노순옥	박성희	배부례	노순옥
	김재흥	최경미	이재문	차혜심
	장영숙	신영신	신영신	곽혜자
	정경례	진정숙	김혜권	박옥순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조영순
	권미숙	박미영	교회	박효선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이순정
	이형숙	윤수진	윤수진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임영선
	정영선	서정순	김경혜	서정순
	박혜경	조항미	최숙화	임창원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마음으로 읽는 글

# 聖 느티나무

속이 겹게 타버린 고목이지만  
창녕 덕산리 느티나무는 울봄도 잎을 내었다

잔가지 끝으로 잎을 밀어올리며 그는  
한 그루 용수처럼  
제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번개가 가슴을 쪼개고 지나간 흔적을 안고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 내다니  
시커먼 아궁이 하나 들여 놓고  
그는 오래오래 제 살을 달여 내놓는다  
낮의 새와 밤의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세들어 사는  
구름 몇 점 별 몇 개 떨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까마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검은 울음 몇 가지가 뻗어 있기도 한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마약 퍼들고 있다

- 나희덕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형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십시오. 참된 생명과 평화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이 있음을 잊고 나의 일과 계획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과 평화의 소임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남, 1:2여선교회 주관예배 설교 : 김기석 목사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권미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방문성 장로	김명희 집사 박성실 권사

4월	영접위원	윤석철 하현철 문홍일 안정숙 박홍재 박경원
	헌금위원	조병무 백혜숙

## 세상에 예쁜 것

최근에 오랜 친구를 잃었다. 그 여자는 화가였다. 어린이처럼 천진난만한 그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암 선고를 받은 후에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고 무진장 복사할 수 있는 컴퓨터 포토샵으로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그림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대중화시켰다.

그가 병원에 간 것도 암이 한참 퍼진 후였는데 그것도 그 자신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친한 친구들이 암만해도 그의 건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아보고 반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받은 진단이니 이미 암이 여러 장기로 퍼진 후였다.

그는 투병도 그답게 명랑하고 씩씩하게 했다. 항암주사를 맞고 퇴원한 날 평소보다 더 왕성한 식욕을 보였고 수다도 더 잘 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중이 감소하는 게 눈에 보였고 적혈구 수치도 떨어져 항암주사를 못 맞을 적도 자주 생겼다. 특하면 워커힌 아파트에서 아차산 능선을 타고 우리 동네까지 걸어와 벨도 누르지 않고 우리 집 마당에 불쑥 나타나 나를 놀라게 하던 그 건각(健脚)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늘 등산복 차림이었다. 항상 먼 길도 걸어서 갈 준비가 돼 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저승길을 갈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았다. 바깥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했을 때도 퍼져가는 암과의 투지로 충만해 있었고 완쾌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그런 그의 태도가 오히려 더 문병객의 마음을 저리게 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게 죽기 엿새 전이었다. 그는 더는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혀가 어눌해져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가 없었다. 그 용감무쌍하던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유학 갔다 급히 돌아와 간병 중인 아들 내외와 5,6개월쯤 되는 손자가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며느리가 어려운 시중을 들고 있었고 어젯밤을 어머니 곁에서 꼬박 새웠다는 아들은 담요를 뒤집어쓰고 코를 골고 있었고, 그 곁에 아기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병실이 넓고 쾌적해 잠든 아빠와 아기가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병원인데 아기가 거기서 졸곤 있어야 된다는 게 안돼 보였다. 전염병은 아니지만 누군가 아기를 데려다가 잠시 봐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 곧 깨달았다. 고통스럽던 병자의 얼굴에 잠시 은은한 미소가 떠오르면서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을 보니 잠든 아기의 발바닥이었다. 포대기 끝으로 나온 아기 발바닥의 열 발가락이 “세상에 예쁜 것” 탄성이 나올 만큼, 아니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예뻐다. 수명을 다하고 쓰러지려는 고목나무가 자신의 뿌리 근처에서 몽실몽실 돋는 새싹을 볼 수 있다면 그 고목나무는 쓰러지면서도 얼마나 행복할까. 병자도 지금 그런 위로를 받고 있음이 분명했다. 아기의 생명력은 임종의 자리에도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다. 찬탄이 절로 나왔다.